

책임자·친척 사칭 ‘랑쪽 사기’ 우리 신변에 도사리고 있어

인민대중들의 반사기 의식과 경각성이 끊임없이 제고됨에 따라 사기군들의 사기 수법도 ‘령활하고 변화무쌍’해지고 있다.

최근, 연길시 모 가두와 이 가두 소속 모 사회구역의 신입 사업일군은 연속 두번이나 사기를 당할 뻔했다. 사기군은 가두 책임자를 사칭하여 사회구역 사업일군을 속이려다가 실패하자 이 사업일군의 친척을 사칭하여 가두 관련 책임자를 속이는 비렬한 사기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반사기 방지 훈련을 받은 사업일군은 전문적으로 단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수단임을 성공적으로 식별하여 사기 피해를 제때에 피하고 경제손실도 피면했다.

가두 ‘책임자’가 리모 위챗 추가 후 링크 보내 대부금 처리 요구

16일 오전, 갓 연길시 모 사회구역에 근무한 사업일군 리모 녀성은 사무를 보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여 열어보니 가두 한 책임자가 그녀의 위챗을 추가하는 메시지가였다.

“가두에 확실히 이런 이름을 가진 책임자가 있는 터라 별생각 없이 수락했다.” 리모가 상대방의 위챗 친구 신청을 통과하자 상대방은 음성 전화를 걸어와 리모가 모 온라인 플랫폼홈에서 대부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관계로 플랫폼홈이 이미 가두에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만약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이

싫으면 재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리모는 어리둥절했다. 한참을 생각해봐도 그 어떤 인터넷 대부금을 빌린 적이 없을뿐더러 누구한테서도 돈을 빌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여 자신이 얼마를 빚졌는지 상대방에게 물었다. 상대방은 그녀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링크를 보낼 테니 그녀가 스스로 클릭하여 들어가 보라고 했다. 리모는 인터넷 대부금을 빌린 적도 없고 타인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또 친척이나 친구가 리모의 증명서류를 가져다가 대부금 담보를 셋을 수도 있다며 제때에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

“상대방이 말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정말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정보를 담보로 사용했다면 정말 나의 신용 조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일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니 리모는 다소 걱정이 되었다. 링크를 클릭할지 말지를 망설이던 중 그는 며칠전 파출소에서 전제한 전신사기 방지 기능 수업에서 “낯선 링크는 클릭하면 안된다.”며 거듭 강조하던 경찰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하여 링크를 클릭하라고 그녀를 재촉했다. 이때 한 동료도 책임자를 사칭하는 이자의 어투가 다르고 성별도 다르다고 귀띔해주었기에 리모는 상대방이 사기군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하여 즉시 상대방의 전화

를 끊고 상대방을 위챗 친구 블랙리스트(黑名单)에 넣고 그의 위챗을 삭제해버렸다.

리모 ‘친척’, 가두에 고발해 리모 처벌을 요구

리모와 동료들이 사기피해를 피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있을 무렵, 이 가두규률사업위원회 책임자는 한 ‘고발’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이 가두 소속 모 사회구역의 사업일군 리모의 친척이라고 자칭하더니 리모가 그에게서 빌린 돈을 장기간 갚지 않았다면서 규률사업위원회에서 제때에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책임자가 즉시 가두 및 소속 사회구역 사업일군 연락처 목록을 확인해본 결과 확실히 모 사회구역에 리모라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고 리모가 고발자에게 얼마를 빚졌는가고 물었다. 상대방은 2,000원을 빚졌다면서 만약 규률사업위원회에서 리모를 제때에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 상급부문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 책임자는 즉시 사회구역 및 리모 본인에게 관련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확인 과정에서 이 책임자는 리모가 가두 책임자를 사칭한 사기군으로부터 보내온 링크를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자세한 대조를 거쳐 이 책임자와 리모는 사기군 한명이 각각 리모의 친척과 가두 책임자를 사칭한 것임을 확인했고 랑측을 모두 속이는

방식으로 리모가 그 낯선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인하려는 짓거리임을 확인했다. 그후 리모는 관할구역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다. 경찰이 사기군의 휴대전화에 원격해자 사기군은 뜻밖에도 당당하게 경찰에게 명령하는 어투로 “리모에게 당장 링크를 클릭하라고 시켜. 그러지 않으면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사기군은 심지어 기고만장하여 가두규률사업위원회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감히 사람을 찾아 나를 위협해? 너 두고보자!”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단 리모가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바 이렇게 되면 사기군은 신속하게 리모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그의 모든 은행 카드와 계좌의 돈을 이체해간다. 가두와 사회구역 여러 부문의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기에 이러한 속임수는 전문적으로 여러 단위 일군들을 대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가 발송해온 그 어떤 낯선 링크도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신분증번호, 은행카드번호, 검증코드를 요구하면 더더욱 주지 말아야 한다며 사기군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광범한 기층 사업일군 및 시민들에게 귀띔했다.

/ 유경봉기자



백만명 팬을 둔 왕홍

‘자살’ 소동으로 경찰의 립건조사 받아

최근, 백만명의 팬을 보유한 왕홍 ‘소념이아 (是小念噢)’가 협박을 받고 자살했다는 소식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5월 13일, 성도시공안국 금강분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건 경과를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5월 11일, 한 개인 계정에 “계정 운영자가 2025년 5월 10일 23시 성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본 계정은 친구가 관리할 예정”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이어 계정 댓글란에 “상대방이 130만원을 갈취하려 했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문구가 추가로 게시되며 사회화적 논란이 확산되었다.

금강분국은 이 사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신속히 조사확인사업을 전개했다. 5월 11일, 경찰은 전화와 영상 연결을 통해 사망자로 알려진 계정 운영자 손모(녀, 18세, 안휘성 무호 출신)가 자살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여론의 우려와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해 5월 12일에 담당 경찰은 다른 성에 있는 손모와 직접 만나 협박 정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손모는 일시적인 충동으로 인해 고의로 ‘세상을 떠났다’는



허위정보를 조작해 인터넷에 발표했으며 친구를 사칭하여 댓글란에서 자작극을 연출하고 평론을 하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허위사실을 류포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손모의 행위에 대한 립건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손모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손모는 네티즌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고품을 요구받았으나 보내지 않았고 현재 상대방을 차단한 상태이며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관련 상황에 대해 공안기관은 추가 수사중이다.

경찰측은 사이버공간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이 아니다. 허위사실을 조작, 류포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타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민일보



이런 문자 받으면 즉시 삭제하세요!



사기군들이 만든 이런 원격 조작 사기 앱 다운받지 말아야

최근 북경시에서 ‘택배도착’ 문자를 받고 나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동로인(72세)은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립근 택배역(驛站)으로 향했다. 그러나 수취 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물건이 없자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전화해 문의했다. 가해자는 택배 관련 내용은 일체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당신이 실수로 ‘백만보장 (百万保障)’ 씨비스를 개통하여 매달 800원이 자동으로 차감된다.”고만 주장했다. 동로인이 “나는 그런 씨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가해자는 즉시 “공식 앱을 다운로드해야 해지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가해자의 지시에 따라 동로인은 해당 앱을 설치했다. 지시대로 앱을 몇 번 조작하자 동로인의 은행카드에서 자금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설모(54세)도 동로인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 ‘택배도착’ 문자를 받았지만 택배를 찾지 못해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가해자는 “택배 기록은 오류이고 실제로는 고액님이 실수로 보험에 가입해 월 7,000원이 자동 차감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즉시 해지해야 한다.”며 설모에게 신분증번호, 은행카드 비밀번호, 얼굴 인증, 문자 인증코드 등을 요구했다.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하자 설모의 은행카드에서 17만원이 사라졌다.

사실 동로인과 설모가 겪은 사건

은 기존의 ‘백만보장’ 사기 수법에 택배문자를 악용한 새로운 수법이다. 사기군들은 택배문자를 기점으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기전화에 연락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백만보장’, ‘보험가입’ 등의 거짓말을 꾸며내 피해자가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고 화면 공유 앱을 다운받게 유도하여 자신들의 도용 목적을 달성한다. 웃그림은 사기군들이 피해자들에게 보내온 프로그램과 원격 조작 앱들이다. 이런 앱들은 절대 다운받지 말아야 한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택배문자’ 사기사건의 피해자 대다수는 60~70대 고령층이다. 많은 로인들이 “돈이 차감된다.”는 말에 당황하여 사기군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택배수령’과 ‘보험가입’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의심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다.

경찰 안내

택배문자를 받았을 때는 즉시 정규 경로를 통해 구매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장구 택배는 어떠한 ‘백만보장’, ‘보험가입’ 등 조작 씨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로금 항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사기이다.

무릇 알 수 없는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여 비공식 앱을 다운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다.

/ 인민일보



75 세 할머니 , 12 세 손자를 ‘강간범’으로 모함한 사기군 붙잡아



“이 사람이 바로 사기군이야!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어!”

최근, 산둥성 연태시 지부구 행복가두에 거주하는 75세 왕할머니는 경찰의 도움으로 사기군을 직접 붙잡았다.

일전, 왕할머니는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손자가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으니 5,000원을 준비하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왕할머니의 손자는 겨우 12살에 불과했지만 손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크게 놀란 나머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즉시 현금을 마련해 사기

범에게 넘겨주었다. 그후 얼마 안되어 왕할머니는 또 전화를 받았다. 전화에서 상대방은 “5,000 원으로는 부족하니 추가로 20 만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 이에 왕할머니는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며느리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했다.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작전을 개시했다. 왕할머니에게는 사기군과 연락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신속히 왕할머니

가 거주하는 주택단지에 경찰력을 투입시켰다. 경찰은 사기군 일당들의 잠복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에 체포망을 구축했다. 사기군을 속이기 위해 왕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에 돌아온 지 30 분도 채 안돼 왕할머니는 사기군으로부터 주택단지 입구에서 돈을 건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왕할머니가 주택단지 문을 나서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다가와 “돈을 가져왔나?”며 물었다. 그러자 왕할머니는 즉시 그 남성을 붙잡고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사기군이야! 잘못됐다면 내가 배상하겠어!”라고 웨쳤다. 이에 남성은 당황한 기색으로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방금 이곳에 도착했을 뿐인데 제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냥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데 왜 저를 붙잡고 있는 겁니까?”라고 발뻠하며 변명했지만 왕할머니는 “길을 잃었다고? 그게 말이 되나?”며 단호하게 일축했다. 이때 미리 매복해있던 경찰들이 달려와 남성을 제압했다. 해당 남성과 왕할머니는 파출소에 가서 추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외지에서 연태시로 와서 사기조직을 위해 사기로 얻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현재 사건은 일층 수사중이다.

경찰 안내

최근 70세 이상 고령층을 집중 표적으로 ‘가족사칭’ 전화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해당 가족과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사기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사기범의 요구에 거짓으로 대응하는 한편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손실을 최대한 만회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 인민일보



룡정 시민 , 딸아이 찾아준 경찰에 감사기 전달

일전, “동북에선 아이를 잃어버릴 녀름이 없어.”라는 말이 룡정시에서 실제로 립증되었다.

최근, 룡정시공안국 룡문파출소는 지휘센터로부터 “해란로 철도 건널목에서 녀자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철도 직원이 녀자아이에게 과자를 건네며 달라고 있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한 채 과자를 움켜쥐고 몸을 떨고 있었다.

“애야, 겁내지 마.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게.” 룡문파출소의 경찰은 몸을 웅크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녀자아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30 분간의 인내심 있는 소통 끝에 아이는 마침내 “엄마는 소고기를 팔아요.”, “저는 제 2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라는 결정



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경찰은 즉시 유치원에 연락하여 선생님을 통해 녀자아이의 신원을 확인한 뒤 아이의 어

머니 하녀사와 성공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제서야 하녀사는 아이가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